

김해시지부, 정기총회 및 개소식 가져

김해시지부(지부장 손철배)는 7월 27일 개소식과 더불어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김해시 지부가 마련한 사무실은 김해시·군 통합에 의한 것으로 20평 규모.

앞으로 김해시지부는 사무실 내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자체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지부, 회원단합 야유회 개최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오산지부(지부장 김현태) 여름철 야유회가 지난 7월 22일 용인군 수지면에 있는 고기리유원지에서 개최됐다.

안양지부, 버터 이용 제품 세미나 개최

안양지부(지부장 이범진)는 7월 20일 마스타 바게트에서 버터를 이용한 파운드 케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립유지 협찬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현대제과기술학원 박영신 부원장이 실연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천지회, 회원 위한 하계 휴양소 마련

인천지회(지회장 김송준)는 7월 20일부터 한달동안 송도유원지에 회원을 위한 하계 휴양소로 천막을 설치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 동구지부, 야유회 개최

대전동구지부(지부장 신현상)는 7월 14일 안영리 유원지에서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하고 회원간의 결속을 다졌다.



부산 청송회, 기술세미나 개최

부산지역 기술인 모임인 청송회(회장 김문국)는 7월 26일 보우상사에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내고장 부산의 제과기술 발전과 제과인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실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하이박경연대회와 서울 국제빵과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반도제과 정향우 씨가 초빙돼 빵공예를 실연해 주목을 끌었다.

청송회는 앞으로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의 기술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부산지회, 자체 세미나 개최

부산지회(지회장 김중수)는 8월 9일 삼양사 후원으로 김상엽 제과기술학원장을 초청해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50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는 슈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성북지회, 사랑의 빵 전달
붕괴 현장에 삼품 빵 2,500개**

성북지회(지회장 이기섭)는 7월 20일 구청복지과를 통해 삼품백화점 붕괴 현장에 130여 업소가 모은 빵 2,500개를 전달해 제과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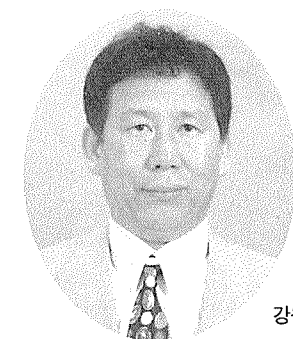
수원지부, 기존업주교육 실시

수원지부(지부장 이덕주)는 7월 11일 수원시민회관에서 제과업소 35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업주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위생과 과장과 본회 김석중 실장이 강사로 초빙돼 실시한 이날 교육은 수원을 비롯 의정부·평택·안산·오산 등 경기 지역의 제과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밀양지부, 창립총회 개최

밀양지부(지부장 강원국)가 6월 2일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세 지부를 결성했다.



강원국 지부장